



주희정(상상), 이승현(오리온), 허웅(동부), 이정현(KGC·왼쪽부터)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열린 2015~2016 KCC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원주 3연승으로 끝낸다” 이승현-허웅 ‘동상이몽’

(오리온) (동부)

프로농구 6강 PO 미디어데이 신경전



‘2015~2016 KCC 프로농구’ 챔피언을 가리는 플레이오프(PO)가 25일 막을 올린다. 정규리그 1위 KCC와 2위 모비스가 4강 PO에 직행한 가운데 6강 PO에는 오리온(3위)-동부(6위), KGC(4위)-삼성(5위)이 맞붙는다. 6강 PO에서 흥미로운 라이벌전이 성사돼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KBL 센터에서 열린 6강 PO 미디어데이에서 라이벌들은 저마다 승리를 외쳤다.

●이승현(오리온) VS 허웅(동부)

프로 2년차 이승현(24)과 허웅(23)은 2시즌 연속 PO 무대를 밟게 됐다.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 용산고 선후배인 둘은 대학교 시절 치열한 경쟁 관계였다. 이승현은 고려대, 허웅은 연세대로 진학해 2년간 뜨거운 기싸움을 펼쳤다. 항상 선배 이승현의 승리였다. 프로 1년차때는 허웅의 팀 성적이 조금 더 좋았다. 이승현은 6강 PO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허웅은 4강 PO에 직행한 이후 챔피언 결정전까지 뛰었다. 허웅은 “원주에서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승현이 “(허웅이) 말대로 원주에서 3연승으로 끝내겠다”고 맞붙을 놓았다. 마이크를 다시 잡은 허웅은 “나도 3승으로 원주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허웅은 “(이)승현이형이 워낙 잘 챙겨줘 아주 친하지만 승부는 승부”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승기(KGC) VS 이상민(삼성)

KGC 김승기(44) 감독과 삼성 이상민(44)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1년 선후배로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 김 감독이 선배지만 청소년대표, 상무 등에서 한술밥을 먹었다. 선수생활은 이 감독이 화려했다. 대학시절부터 최고의 스타로 각광받았고, 수많은 우승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지도자로는 김 감독이 조금 더 성공적인 길을 걸었다. 감독 데뷔는 이 감독보다 1년 늦었지만 코치로 재직하면서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까지 여러 차례 우승을 경험했다. 두 감독은 이제 4강 PO 진출권을 놓고 외나무다리 대결을 펼친다. 스타일은 선수 때와 비슷하다. 김 감독은 수비를 중요시한다. 이 감독은 선수시절처럼 공격에 더 비중을 준다. 두 감독이 준비 중인 창과 방패 중 어떤 게 더 강할까.

▶6강 PO 감독들이 뽑은 킬러플레이어 8명

최홍석 기자 gyong@donga.com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전북판 ‘K리그 방위대’ 드디어 뒀다

10년만의 챔스리그 정상 위한 꿈의 엔트리 첫 공개



‘K리그 방위대’로 불리는 ‘절대 1강’ 전북현대의 시즌 첫 라인업이 마침내 공개됐다. 전북 최강희 감독은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도쿄와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E조 1차전 FC도쿄와의 홈 경기에서 국가대표급 멤버들로 라인업을 꾸렸다. 화려한 스타 선수들의 대기 등장에 전주성이 돋보였다. 왼쪽부터 이동국, 김신욱, 김보경, 로페즈. 스포츠동아DB

이동국 김신욱 김보경 이재성 이종호...
전·현직 국가대표에 로페즈 등 용병까지
슈틸리케 감독도 코치들과 도쿄전 관련

드디어 ‘K리그 방위대’가 세상에 공개됐다.

또 한 번의 아시아 정상을 꿈꾸는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챔피언 전북현대는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도쿄(일본)와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E조) 1차전을 가졌다.

치열한 90분, 화려한 승부 못지않게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은 올 겨울 선수이적시장에서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열을 올린 전북의 2016시즌 첫 번째 공식 라인업이었다. 특히 2006년 이후 10년 만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상황이기도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 건 당연했다.

아니나 다를까. 국가대표팀이 부럽지 않은 초호화 진용이 등장했다.

‘다공(다치고 공격)’ 기조에 맞게 원톱과 투(2)톱, 스리(3)톱까지 다채로운 공격 조합이 가능해진 전북 최강희 감독은 킥오프 이틀 전인 21일 완주군의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된 풀 트레이닝을 기점으로 베스트 전력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다양한 공격 전개를 염두에 두고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최 감독은 최대 고민이었던 전방 폭격수에 베테랑 스트라이커 이동국(37)을 세우고, 좌우 날개로서 각각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데려온 고무열(26), 로페즈(26·브라질)를 투입했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김보경(27)과 이재성(24)이 나섰다. 수비형 미드필더 파탈루(30·호주), 포백 수비라인에 김형일(32)과 전남 드래곤즈에서 합류한 임종은(26)을 중

심으로 좌우 풀백으로 박원재(32), 오랜 일본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김창수(31)가 포진했다. 캡틴 완장은 예고대로 골키퍼 권순태(32)가 찾았다.

당연히 백업 자원들도 풍성했다. 울산현대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은 ‘장신 골잡이’ 김신욱(28)과 ‘전남 이적생’ 이종호(24)를 비롯해 기존 외국인 선수 콤비 레오나르도(30), 루이스(35) 등이 벤치에서 호흡을 기다릴 정도였으니 녹색군단은 최강으로 부를 만 했다.

겨우내 느꼈던 감동을 풀기 위해 살얼한 날 속에서도 많은 축구팬들이 스탠드를 찾은 가운데 축구인들도 대거 전주성을 찾아 새로워진 전북의 첫 선을 지켜봤다. 모든 포지션에 걸쳐 전·현직 태극전사들이 전북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더욱 컸다. 오는 3월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홈 2경기(레바논·쿠웨

이트)를 앞둔 국가대표팀 울리 슈틸리케(62·독일) 감독 및 아르무아(아르헨티나) 수석코치, 박건하 코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강철 부위원장 등 유력 인사들이 현장을 방문해 팬들의 시선을 끌었다.

‘챔피언스리그를 위해 한국 이적시장을 주도한 팀’이라며 전북의 겨우내 행보를 최근 떠들썩하게 보도한 일본 취재진과 도쿄 구단 관계자들도 이러한 전북의 모습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일본 프리랜서 기자는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영입)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든 사실만으로도 전북은 충분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기자도 “특정 팀이 이적시장을 주도한 게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를 비난하고 시샘한 팀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전했다.

전주 | 남정환 기자 yoshike3@donga.com

이병헌, 韓美日 ‘3국 다지기’ 재시동

내달 日 대규모 팬미팅...2년만에 활동
美선 아카데미 시상식 시상자 위상 과시

톱스타 이병헌(사진)이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3국 다지기’에 다시 나선다. 주연영화 ‘내부자들’ 흥행은 물론 최근 일본에서 한류스타로서 인기를 재확인하는 한편 할리우드에서도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병헌은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일본 팬미팅에 나선다. 3월1일 오사카에서 시작해 도쿄를 거쳐 3월14일 센다이까지 3개 도시에서 5회에 걸쳐 무대를 꾸민다.

이병헌의 일본 공식 활동은 2년 만이다. 그가 국내에서 몇 차례 부침을 겪었던 그는 위기 때마다 변함없이 결을 지켜준 현지 팬에게 보답하는 뜻에서 무대를 마련했다. 마침 3월12일 영화 ‘내부자들’이 현지 개봉하기도 한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오랫동안 변치 않은 일본 팬들과 신뢰를 나누는



자리”라며 “티켓 판매 분위기가 역시 상당히 좋다”고 밝혔다.

팬미팅 리허설을 위해 23일 오후 도쿄로 출국한 이병헌은 이를 마치는 대로 24일 새벽 미국 LA로 날아간다. 한국배우로는 처음으로 29일(한국시간)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시상자로 나선다.

이병헌은 전 세계 생중계되는 무대에 올라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국배우로서 위상을

파시할 전망이다. 레드카펫도 밟을 계획이어서 의상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물론 일회성 이벤트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이달 초 북미 지역에서 개봉한 ‘미스 컨덕트’로 관객과 만나고 있는 그는 9월 또 다른 영화 ‘황야의 7인’을 내놓는다. 이번 밤미팅 기간에 그 후 반작용에도 참여한다.

국내 활동 계획도 치밀하게 짜냈다. 4월 초 영화 ‘마스터’ 촬영을 시작하는 이병헌은 단단계 사기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을 연기한다. 악역 변신을 예고해 시선을 모으는 가운데 제작진은 최근 스나리오를 수정해 그의 출연 비중을 키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goll1024@donga.com

안녕하세요, 텔런트 김 형일 입니다.
저도 세월이 흐르니까 밤이 무서울 때가 있더군요. 하하,
그래서 '뉴맨' 을 만나고부터 밤이 기다려 집니다,
밤을 기다리게 하는 '뉴맨' ! 남자에게 최곱니다!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동.서.고.금. 남자의 힘!

수세기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은 약해져 가는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옥이나 실리콘 등으로 만든 링을 사용해 왔습니다.
'뉴맨'은 이러한 기존 링을 모토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효능과 안전성은 극대화시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명칭의 발명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강직도도 약해지고 중간에 시든다는 현상으로 고민인 남성들에게 사용즉시 더 크고 강하며 중간에 시들지 않고 보다 오래 사랑을 나누도록 확실한 효과를 드립니다.
2005년 첫 출시 후 현재까지 11년 지속 성장, 일본과 중국에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이라는 기적같은 성공을 이룬 '뉴맨'은 힘에 있어서는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누적고객 120만! 20여개국 수출!**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11년간 지속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T. 1588-3346, 010-8020-3346

평상시 사이즈 | 뉴맨 호수

6.5018	주말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cm	25호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엔케이뉴맨
동대문구 새2015-서울서초-1793로

중국지사 T. 0433-286-5031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